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 광주광역시 표창 수상

- 정책·기획·기업지원부터 산학연관 협력까지 활발한 현장 중심 활동... 광주 에너지 산업 전략 수립과 생태계 강화에 기여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및 협력 플랫폼 구축에 앞장



▲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사진 좌)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지난 7월 10일(목)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에너지밸리기술원 이광희 원장이 광주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10일(목)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원장은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정책 기획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운영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광주형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생태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수소, 배터리, 분산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R&D 사업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자체 간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를 정례화하며 에너지 산업 허브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최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열린 'G.E.T. & ReBorn 광주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에서는 **유망 기업들의 IR 발표를 기획·지원하고, 정책기관·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광희 원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부터 산업 기획,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까지 **광주의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가 국가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